

국·내·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벨사에 헬기 동체 1억5,000만 달러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정해주, 이하 KAI)은 최소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헬기 동체 수출물량을 수주했다. KAI는 지난 2월 20일 '싱가포르 에어쇼' 행사장내 미디어 센터에서 벨 헬리콥터사와 9인승 쌍발 헬기인 '429' 동체 생산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KAI는 이 기간 최소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KAI는 벨사와 함께 429헬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AI 관계자는 "429헬기에 대한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현재까지 150대 이상을 수주했으며 향후 대폭적인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3/4분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각종 시험비행을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고객에게 첫 인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다목적실용위성 설계

대한항공이 다목적실용위성 설계 개발에 참여한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항공기술연구원은 항우연(KARI)에서 총 150억 원 규모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와 5호 본체 및 태양전지판이 들어가는 기본 골조 설계개발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사업본부 항공기술연구원은 2008년 3월 까지 설계 제작 시험을 완료해 시험용과 비행용 4기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과거 무궁화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1호와 2호 본체 및 태양전지판 개발로 자체 국산화 설계 개발 기술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아스트리움과 전자통신연구원에서 52억 원 규모 정지궤도 통신해양 기상위성 본체와 통신 안테나의 설계 개발을 용역받아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다. 대한항공은 "위성체 핵심분야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기술개발로 중장기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부응하고, 세계 위성체시장에 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에 115억 원 지원

산자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 '2006년도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지난 3월 22일 발표했다.

산자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지원규모는 계속 지원 과제 22건에 91억 원, 신규지원 과제 10건에 24억 원으로 총 115억 원 규모다.

금년 신규지원 대상 10개 과제는 완제기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수출가능성이 큰 헬기용 전기신호식 비행제어작동기(FBW) 개발과 향후 국내 다목적 위성에 사용될 수 있는 제어 모듈 자이로(CMG) 개발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개발기간은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고, 상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균등 분할하여 기술료를 상환 납부한다. 단, 중소기업이 주관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며, 기초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상환이 면제다.

신청 자격은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단체, 관련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다.

KAI,

XKT-1 총조립 착수

KAI는 지난 3월 7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XKT-1(KT-1의 수출형 모델) 개발과 관련된 정부 유관부서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XKT-1 총조립 착수행사를 가졌다.

정부 및 협력업체 관계자와 KAI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KAI의 정해주 사장은 "XKT-1 개발을 통해 해외 요구도를 적극 반영한 항공기를 미리 보유하게 되어 동급항공기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총조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인 개발완료를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XKT-1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 수출시대를 개막한 기본훈련기 KT-1과 전술통제기 KO-1의 기본형상을 바탕으로 수출대상국들의 요구도를 미리 반영하여 최신항공장비를 장착함으로써 무장임무능력을 강화하고 장기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이다. KAI가 2002년 12월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과제 협약으로 XKT-1에 필요한 세부계통 및 요소 기술개발에 착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의 본격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지상시험을 비롯한 엄격한 성능 검증을 완료한 후 12월 첫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XKT-1은 경쟁기종에 비해 뛰어난 무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하며, 조종사의 양성을 위한 기본훈련 임무와 저비용



으로 지상 반군 및 조직화된 마약 사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동남아, 중남미 국가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대한항공,

주한 미군 RC-12 기체 창정비 1호기 인도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균용기사업공장에서 지난 3월 17일 운영부대인 주한 미 육군 제3정보대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RC-12 기체 창정비(ACI: Aircraft Condition Inspection)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미 육군에 인도한 항공기는 미 본토 정비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 2005년 9월 대한항공이 6년 계약으로 수주하여 같은 해 12월에 착수한 사업이다.

RC-12 항공기는 최첨단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기 주요부품 장탈 및 분해, 세척, 도장, 검사기체 및 기골 비파괴 검사, 부품 조립 및 장착, 주기점검, 결함수정, 기능 및 작동 점검, 시험비행 등의 기체 창정비(ACI)를 수행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미 육군 제 3 정보대대 정비장교 Reuben K. Wells는 기념사에서 "대한항공의 각종 미군 항공기 정비분야에 있어서의 명성을 금번 사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특히 김해공장에서 제공하는 조기 납기 및 최상의 품질로 주한 미 육군 작전 능력의 획기적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7월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오는 7월 러시아에서 발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최근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7월 궤도 진입을 목표로 최종적인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3월 8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개발에 착수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당초 지난해 11월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기기 점검 등을 이유로 줄곧 미뤄져 오다 최근에 발사시점이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우연 측은 "아리랑 2호가 모스크바 동북쪽 약 200km 지점의 플레체스크에서 발사될 예정"이라며 "발사체인 로켓(Rocket)도 최종 조립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1m급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촬영, 송신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국토개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산림 및 수자원 관측 등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최근 KAI, 프랑스의 위성영상 판매업체 스폿이미지사 등 국내외 업체들과 촬영사진 판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스팟이미지의 경우 발사 이후 임무수명 기간인 3년 동안 예상되는 판매액은 최대 2,7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F-15K,

SLAM-ER 미사일 발사 성공

F-15K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Standoff Land Attack Missile-Expanded Response)발사에 성공했다.

보잉사는 지난 3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인트 무구(Point Mugu)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F-15K가 F-15기 가운데 최초로 SLAM-ER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F-15K는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신에 전

투기로 SLAM-ER을 비롯해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등 2만3,000파운드 이상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 테스트에서 SLAM-ER은 F-15K로부터 마하 0.8의 속도로 발사돼 100해리 떨어진 목표물에 적중됐다. SLAM-ER은 미 해군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가장 정확한 무기로 꼽힌다.

보잉사는 "F-15K와 SLAM-ER 모두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군은 오는 2008년까지 보잉사로부터 F-15K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4대를 인도받았다.



P-3C 2차 사업 성능개량 착수

방위사업청은 해상초계기 P-3C 2차 도입 사업으로 미 해군으로부터 P-3 1대를 들여와 KAI에서 기체 수명연장과 탑재장비 현대화 등 성능개량 작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P-3C 2차 사업은 미 해군이 유사시 보유하고 있는 중고 해상초계기 8대를 구매한 뒤 미국과 KAI에서 성능개량을 거쳐 2010년까지 우리 해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군은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돼 해상 정찰과 잠수함 탐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대한항공 안전평가 세계 12위

대한항공이 항공안전 평가에서 세계 284개 항공사 가운데 12위, 아시아에서 3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안전 전문조사기관인 플라이트세이프 컨설턴트와 한국판 뉴스위크의 2000~2005년 항공사 안전도 평가결과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3월 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세계 항공안전평가 기준인 10년 이상의 기간 중 조사에서 벗어나 최근 6년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기체연령과 기종편성, 안전관리, 운항체제 등 10개 안전항목 합계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87.5점을 얻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 초고속 성장에 따라 잦은 사고가 발생, 과거 12년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계 77위로 평가됐지만 최근 6년간은 단 1건의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큰 순위 변동을 보였다. 이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항공안전 분야의 교육과 종합통제센터 건립 등 시스템 개선 등에 5,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집중 관리해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세계 1위 항공사는 에어웨이 캐나다가 92.1점으로 1위, 미국 US에어웨이 2위(91.7점), 영국 브리티시어어웨이 3위(91.1점)를 차지했으며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전일본공수(ANA)가 1위(세계 4위, 90.0점), 홍콩 케세이퍼시픽항공이 2위(세계 9위, 88.4점)로 나타났다. 또 국내 최강 51개 항공사의 순위는 에어캐나다 1위, 루프트한자항공 2위였으며 대한항공은 7위를 차지했다.

한국 우주인 본격 추진

4월부터부터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주재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계획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된 안건은 △한국 우주인배출사업 추진계획 △해외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실용화 추진계획 △부처별 방재관련 R&D 역할 재정립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강화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운영관리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10위의 우주과학 실험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아래, 4월중에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 선발공고를 낸 뒤 올 연말까지 모두 4단계에 걸쳐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한국인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훈련을 받고, 2008년 4월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우연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주인 배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소요예산 중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불 항공우주 세미나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오는 5월 25일 '한·불 항공우주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프랑스와 국내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 공공기관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양국의 산업현황, 기술협력사례를 소개하며 양국의 상호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세미나에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통상부 장관이 개회식을 주관할 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일시: 2006년 5월 25일(목)

장소: 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회의실(16층)

주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유비프랑스

후원: 산자부, 과기부, 프랑스 경제산업부

협력기관: GIFAS(프랑스 항공산업협회), DGA(프랑스 국방부 산하 방산청), CNES(국립우주연구원), EADS, Thales, Alcatel

발표자(확정중)

프랑스

EADS, Thales, Alcatel, 국립우주연구원(CNES), Dassault Systems, Safran, Messier Dowty, Air France Autre(GIFAS 프랑스 항공산업협회 회원사, SAGEM, SNPE, GIAT, Goodrich, TAT, Intertechnique, Prospace)

한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산자부, 과기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방위사업청 회원사, 대한민국 공군

